

해남아트마루 개관 “문화예술 전시공간 확충”



군립미술관 건립시까지 임시운영...해남읍 중심부 위치 오는 3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개관기념 해남미협 초대전

해남군이 군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임시로 활용하게 될 해남아트마루가 개관한다. 해남아트마루는 해남문화예술회관 인근 (구)국토정보공사 해남진도지사예 위치에 있다. 1층은 수장고와 사무실, 2층은 109㎡규모의 전시실로 구성된다. 해남아트마루는 해남군립미술관이 개관하기 전까지 임시로 운영되는 공간으로 해남읍 중심부에 위치해 지역민들이 쉽게 미술전시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관 기념으로 오는 31일부터 ‘해남미술협회와 함께하는 <오프해남을 그리다> 전시회가 열린다. 해남 대표 미술단체인 (사)한국미술협회 해남지부의 박윤희 회장을 비롯한 28명의 작가가 참여, 동양화, 서양화, 서각, 서예 등 다양한 작품을 다음달 16일까지 선보일 계획이다. 해남군은 민선8기 문화예술분야 중점추진 과제로 오는 2025년까지 해남읍 연동리에 복

합유지업과포크를 건립할 계획으로, 해남군립미술관도 이곳에 위치하게 된다. 군립미술관 건립을 통해 예향 해남의 문화예술을 더욱 활성화하고, 수집, 전시, 교육 등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거점 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마땅한 전시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미술단체의 전시 문의가 벌써부터 쇄도하고 있다”며 “해남아트마루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작지만 큰 울림이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라며, 지역예술인들이 성장하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장흥 용산면,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마실장’ 인기

장흥군 용산면 전통시장인 마실장에서 지난 21일 ‘아름다운 사람들의 세상, 마실장’ 행사가 열렸다. ‘문화공간 예음’ 주관으로 펼쳐진 이날 행사는 전남문화재단의 ‘2022 문화기반 시설활용 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활기를 잃은 용산시장 마실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직거래 장터, 먹거리 장터가 운영됐다. 앞으로도 ‘문화공간 예음’은 용산면 마실장에서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있는 어울림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낮마실은 9월 11일, 10월 16일, 11월 6일 오전 9시 30분부터, 밤마실은 10월 6일, 11월 26일 저녁 6시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군, 가을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맨발 모래걷기·해변 오감치유 명상·노르딕워킹 등 실시

완도군은 9월 1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가을, 파도와 행복」이라는 테마로 진행되는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가을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장기화된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총 28회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월별로 다르게 구성된다. 9월에는 맨발로 해변가 모래 위를 걸으며 틀어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고, 올바른 호흡근 확장과 이완법을 배워 폐 깊숙이 해양 에어로졸을 흡입할 수 있는 해변 호흡과 소도구를 활용해 문진 근육을 풀어주고 재활을 돕는 필라테스가 진행된다. 10월에는 몸 안의 활성 산소를 배출해 주는

맨발 걷기 어싱 명상, 바다 스트레칭 명상, 백색 소음인 파도 소리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생각을 내려놓는 명 매끼리 명상 등 자연과 하나 되는 오감 치유 명상을 할 계획이다. 11월에는 노르딕 폴(pole)을 활용해 몸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평소엔 잘 사용하지 않는 몸의 뒤 근육을 이용하여 걷는 노르딕 워킹이 이루어진다. 「가을, 파도와 행복」 프로그램은 9월에는 16일과 17일, 10월은 14, 15일, 11월은 11일, 12일에 운영되며, 관광객 및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일정별로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지원팀(☎061-550-5682, 5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은 “급변하는 사회·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완도의 정당한

해양자원을 통해 치유와 힐링을 경험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과 대상자를 더욱 다양화하여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추석 명절 부정

축산물 유통점검 실시

26일까지...축산물이력제·위생 등 점검
진도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와 위생 지도 단속에 나섰다. 축산물 판매업소와 운반업소 등 추석 제수용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이행 상황과 유통기간 준수 여부 등 축산물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거래내역 등 전산신고 이행, 이력번호 표시 사항 준수 여부, 수입산·국내산 원산지 둔갑 판매, 작업장 시설 및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식육 등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군은 위법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고, 개선 사항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축산물이 많이 소비되는 추석 명절에 축산물이력번호 표시와 위생 준수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군, V-랜드·초당림 물놀이장 성황리에 종료

지난 7월 23일 개장 후 한달 간 총 1만여 명 방문

강진군의 여름 피서지인 보은산 V-랜드와 칠량면 초당림 물놀이장이 피서객들에게 내년을 기약하면서 지난 21일 폐장했다. 지난달 23일부터 개장한 물놀이장 2곳은 평일 300여 명, 주말 600여 명이 다녀가 한달간 1만여 명이 방문해 강진군민뿐만 아니라 강진군을 방문한 인근 시군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어 여름철 대표 관광지로 본격 자리매김했다. 강진군은 물놀이장 내 사고를 방지하기 위

해 22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샤워실 및 화장실, 평상 등을 무료로 제공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샤워실과 화장실 1일 3회 환기, 젖은 마스크 교체 권고 등 방역 수칙을 지키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노력을 기울여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각인시켰다.

강진=김영일기자



보은산 V-랜드 물놀이장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